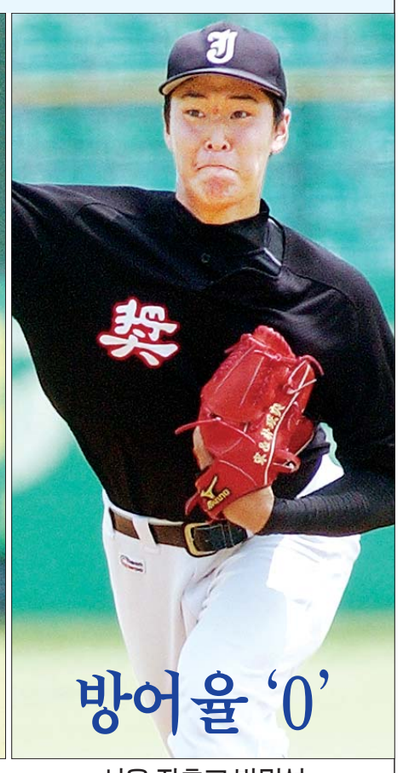
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7714

## ■ 14회 무등기 고교야구가 남긴 것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한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광주일보사·대한야구협회 공동 주최)가 지난 18일 서울장충고의 우승으로 8일간의 대열전을 마감했다. 이번 대회에는 2008 프로야구 1차 지명선수인 군산상고 전태현(KIA·투수)과 대구상원고 우동균(삼성·외야수)을 비롯, 한국야구를 이끌어 갈 고교 유망주들이 대거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뽐냈다. 특히 김병헌과 서재응, 최희섭, 이승엽 등 한국을 빛낸 세계적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한 무등기의 명성답게 국내의 스카우트들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또 무등기 대회 역사상 첫 노히트 노런의 기록이 탄생되는 등 신기록도 풍작을 이뤘다.*

노히트 노런

대구 상원고 김민석



방어율 '0'

서울 장충고 박민석

# 유망주·대기록 풍성

# '투고타저' 아쉬움도

**▲우수 유망주 발굴의 장**

두 명의 '민석'은 이번 무등기 대회가 발굴한 '깜짝스타'다.

방어율 '0'의 뛰어난 제구력을 선보인 장충고의 박민석은 무등기 대회에서 잡아올린 '대어'로 꼽힌다. 140km대 초반의 직구와 130km대의 예리한 슬라이더를 겸비한 박민석은 이번 대회 3게임에 등판, 19.1이닝동안 9피안타, 9탈삼진, 무실점을 기록,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대회 첫 노히트 노런의 대기록을 작성한 대구상원고 우완 정통파 김민석도 한국 프로야구 8개 구단 스카우트 모두가 군침을 흘릴 정도로 호투를 선보였다.

지난 13일 대회 1차전 안산공고와의 맞대결에서 9이닝동안 안타없이 5탈삼진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된 김민석은 스트라이크존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체인지업과 슬라이더가 일품으로 꼽혔다.

이번 무등기 대회를 통해 전국대회에 첫 선발 등판한 광주동성고의 장경훈도 모두 3경기에 선발 등판해 17.1이닝동안 13피안타, 7탈삼진, 5실점으로 호투, 8개 구단 스카우트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 냈다.

이밖에 광주제일고 '특급 마운드' 정찬헌과 윤명준, 이광민(투수·이상 동성고), 최원제(투수·장충고) 등도 2008년 신인 2차 지명 대상으로 손색이 없는 선수들로 지목됐다.

타선에선 10타수 5안타(타율 0.500)로 불꽃타를 뽐낸 중앙고 2루수 신석기와 빠른 발과 넓은 수비 공간을 자랑하는 '호타준족'의 동성고 중견수 윤효섭이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국내외 스카우트 높은 관심**

미국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은 최근 제 14회 무등기 대회에 참가한 정찬헌(광주일고·투수)을 비롯해 최현욱(외야수), 최형록(내야수·이상 군산상고), 최원제, 박민석(이상 투수·장충고) 등 5명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신분조회를 의뢰하는 한편 기량 점검에 들어가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MLB 외에도 국내 8개 구단 스카우터들이 대회 기간내내 24개 참가팀 선수들의 기량을 체크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2008년 신인 2차지명을 앞두고 대통령배와 청룡기를 통해 눈여겨 본 선수들의 기량을 재점검 할 수 있는 대회 시기 때문이다.

장효조 삼성라이온즈 코치는 "2008년도 신인 2차 지명(8월16일)을 앞두고 개최되는 만큼 스카우터들의 관심도 높다"면서 "특히 대통령배와 청룡기에서 낙점한 선수들을 재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투고타저 현상은 여전**

제 11회 대회까지 평균 3개 이상이 터지던 홈런은 제 12회 대회(1개)를 기점으로 13회에도 홈런이 1개에 그치는 등 매년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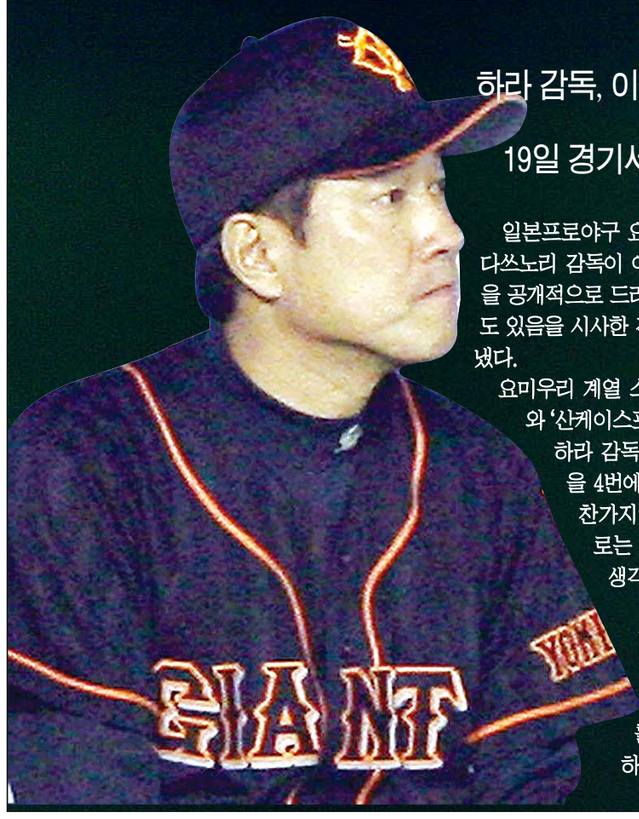
이번 14회 대회서도 23개 경기중 홈런이 한 개 밖에 터지지 않았다. 반면 마운드에선 노히트 노런을 비롯해 완투승이 6차례나 나왔다.

무등기 대회에 앞서 열린 청룡기 대회에서도 그라운드 홈런을 때린 선수가 홈런왕에 올랐을 정도로 최근 고교야구의 투고타저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KIA 김경훈 스카우트 팀장은 "이번 무등기대회는 우수한 투수들이 많이 출전한데다 고교야구 전반적으로 타자들의 파워가 약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일단 운동신경이 뛰어나면 타자보다는 투수로 키우려는 한국야구의 풍토가 이같은 투고타저현상을 부채질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방망이 침묵 너무 길다"




## 하라 감독, 이승엽 부진에 일침

## 19일 경기서 6번타자로 밀려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하라 다쓰노리 감독이 이승엽(31)에 대한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4번 타자에서 뺄 수도 있음을 시사한 직후 곧바로 6번으로 밀어냈다.

요미우리 계열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호치'와 '산케이스포츠'는 19일 인터넷판에서 하라 감독이 타격이 부진한 이승엽을 4번에서 제외하고 저조하기 마찬가지인 유격수 니오카 도모히로는 아예 선발 라인업에서 뺄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다.

하라 감독은 인터뷰 후 이날 도쿄돔에서 열린 지바 롯데전에서 이승엽을 6번으로 밀어내고, 아베를 4번자리에 배치했다.

하라 감독의 인내심이 극에 달한 건 17일 소프트뱅크전이었다.

이승엽은 5번 모두 주자가 있는 상황에 타석에 들어섰지만 3연타석 삼진을 포함, 단 한 차례도 안타를 때리지 못하고 경기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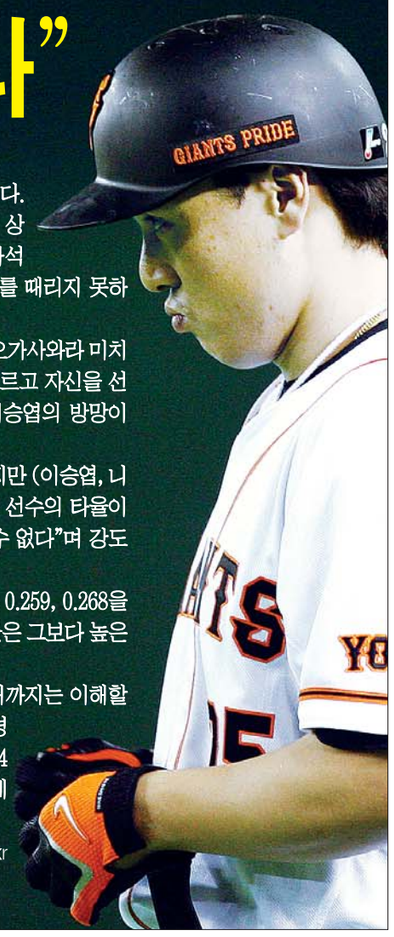
특히 소프트뱅크가 3번 타자 오가사와라 미치히로를 두 차례나 고의 4구로 거르고 자신을 선택하는 굴욕감을 안겼음에도 이승엽의 방망이는 침묵했다.

하라 감독은 "몇 번이나 말했지만 (이승엽, 니오카의) 부진이 너무 길다. 주전 선수의 타율이 팀 타율보다 낮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두 선수를 비판했다.

이승엽과 니오카는 시즌 타율 0.259, 0.268을 때리고 있다. 요미우리의 팀 타율은 그보다 높은 0.280이다.

이어 이승엽에 대해 "삼진 2개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도 3개는 안된다. 17일 경기와 같은 모습은 좋지 않다"며 4번의 책무를 잊은 이승엽의 자세에 고개를 가로 저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안 풀리네"

## 김병현 이적 후 첫 구원 등판

## 2.2이닝 동안 안타 4개 2실점

김병현(28·플로리다 말린스)이 이적 후 처음으로 구원투수로 나섰지만 부진했다.

김병현은 19일(한국시간) 시카고 US 셀룰러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경기에 팀의 두번째 투수로 등판한 뒤 2.2이닝 동안 삼진 2개를 잡았지만 안타 4개와 볼넷 1개로 2실점했다.

5선발이 필요하지 않은 팀 사정상 당분간 불펜에서 활약할 김병현의 시즌 평균 자책점은 5.11에서 5.22로 약간 올라갔다.

김병현은 팀이 2-8로 끌려가던 4회 말 2사에서 선발 조시 존슨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뒤 첫 타자 루이스 테레로를 2루 땅볼로 잡았고 5회에도 삼진 1개를 곁들여 삼자범퇴로 가볍게 막았다.

그러나 6회 1사에서 이구치 다다히토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 2사 후 폴 코너코 타석 때 도루를 허용하고 적시타를 얻어맞아 한점을 빼앗겼다.

7회에도 테레로와 롭 매코비악의 연속 안타 등으로 1사 1, 2루에 놓였고 후안 우리베의 중전안타로 한점을 더 내준 뒤 구원투수 레니엘 핀토로 교체됐다. 플로리다는 6-10으로 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2군행 자청

## KIA 이종범 최근 부진따라

## 당분간 재활군서 개인훈련

"이종범 너마저…."

'바람의 아들' 이종범(37·KIA·사진)이 올 시즌 처음으로 1군 엔트리서 제외됐다.

KIA는 19일 외야수 이종범과 최훈락(25)을 2군으로 내려보내고 외야수 류재원(24)과 내야수 김정수(21)를 1군에 등록시켰다.

팀 주장을 맡고 있는 이종범은 지난 18일 서정환 KIA 감독과 면담에서 당분간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로 했고, 2군 경기에 바로 나서지 않는 대신 당분간 재활군에 머물며 개인 훈련을 하기로 했다.

이종범이 1군 엔트리서 제외된 것은 지난해 7월(3일, 27일) 이후 세번째다.

이종범은 올 시즌 19일 현재 57경기에 나서 180타수 33안타, 15득점, 11타점, 도루 3개를 기록하며 타율 0.183으로 부진하다. 삼진도 무려 19개나 당했다.

이종범의 이번 2군행은 자청으로 이뤄진 만큼 재충전의 성격이 짙다.

지난해에도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던 이종범은 2군행 이후 1군에 복귀하면서 9월과 10월 평균 3할타를 때려냈고, 팀을 4강으로 이끈 일등공신이 됐다.

이종범은 "현재 컨디션이 좋지 않다.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빠지게 돼 미안한 마음이지만,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 돌아오겠다"면서 "1군에 다시 복귀해서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상금왕 2연패 이루겠다"

## 최근 10년간 OB 2개뿐

## 내일 KB스타투어 출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지존'으로 군림하고 있는 '꼬마천사' 신지애(19·하이마트)가 2000년 정일미(35·기가골프) 이후 끊긴 상금왕 2연패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올해 7개 대회에 출전해 3차례 우승을 차지한 신지애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경북 포항 오션힐스골프장(파72·6천248야드)에서 열리는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에 출전한다.

28일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세번째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 초청장을 받은 신지애가 24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야 하는 빡빡한 일정에도 출전을 강행한 것은 상금왕 2연패에 대한 의욕 때문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 상금왕은 1999년과 2000년 정일미가 잇따라 차지한 이후 해마다 주인이 바뀌어 6년 동안 2연패가 없었다.

신지애는 "상금왕을 꼭 지키고 싶다"면서 "이제 겨우 지은희와 안선주를 앞섰는데 기회가 있을 때 승수를 보태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다"고 이번 대회 우승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다"는 신지애의 출사표는 기록집을 들쳐보면 '엄살'처럼 들린다.

시즌 2승 고지는 지은희(21·캘러웨이)와 안선주(20·하이마트)에게 먼저 내줬지만 3승 고지를 선점한 신지애는 다승 1위, 상금랭킹 1위(2억4천600만원), 평균타수 1위(70.48타), 대상 포인트 1위(141점), 톱10 입상률 1위(100%), 그린 적중률 1위(82.72%), 라운드당 평균 버디 1위(3.76개) 등으로 압도적인 실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신지애는 "지금까지 주니어 시절부터 시작해 프로 선수가 된 이후까지 10년이 넘도록 공식대회에서 아웃오브 바운스(OB)는 딱 두개밖에 없었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을 최근 공개했다.

아무리 스윙이 좋은 선수도 순간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피할 수 없는 것이 OB인데 평생 2개의 OB 밖에 없다면 신지애의 집중력은 놀랍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 고교생 장타왕 박성호의 괴력

## 장타자 대회서 380야드 날려

고교생 '장타왕' 박성호(17·제주관광산업고)가 이번에는 무려 380야드에 이르는 초장타를 때려 화제가 되고 있다.

박성호는 18일 강원도 문막 오크밸리골프장에서 치러진 2007 한국장타자선발대회 예선 3차 대회에서 380야드를 날려 우승을 차지했다고 대회 주관사인 웍스골프코리아와 골프다이제스트가 19일 밝혔다.

예선 1~3차 대회를 모조리 우승한 박성호는 특히 지난 5월 1차 대회에서 세운 대회 최장타 기록(365야드)을 한 달만에 15야드나 늘리는 괴력을 과시했다.

박성호는 "그동안 거리 늘리기보다는 방향성 위주의 훈련을 했다"고 말해 경쟁자들을 주눅 들게 했다.

1980년대 여자배구 국가대표 센터로 활약했던 유애자씨의 아들인 박성호는 190㎝ 85kg의 당당한 체격을 갖춰 장타를 펑펑 뿜어내지만 6년 동안 출전한 주니어 골프 대회에서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장타자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의 고교 후배이기도 한 박성호는 "결선대회 우승에 이어 일본장타대회를 제패해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장타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꿈"이라면서 "앞으로 정확성과 쇼트게임을 가다듬어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